문화체육관광부 **보 도 자 료**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

보도 일시	2021. 12. 27.(월) 13:30	배포 일시	2021. 12. 27.(월) 13:30
담당 부서	문화예술정책실 지역문화정책과	책임자	과장 이정미 (044-203-2611)
		담당자	사무관 김자영 (044-203-2607)

문화로 특별한 도시, 현장에서 답을 찾다

- 12. 27. 문체부 장관, 18개 문화도시센터장 등과 만나 정책 의견 나눠 -

문화체육관광부(이하 문체부) 황희 장관은 12월 27일(월), '제1회 문화도시 박람회'가 열리고 있는 청주 동부창고에서 문화도시 관계자들과 만나 사업의 성과와 향후 발전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. 이번 간담회에는 18개 문화도시센터장, 문화도시 정책 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.

문화도시 조성사업은 지역이 자율적으로 문화정책을 기획·실현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. 「지역문화진흥법」에 의해 지정되는 문화도시에는 5년간 최대 국비 100억 원을 포함해 약 2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. 현재 제1차 도시 7곳*, 제2차 도시 5곳**, 제3차 도시 6곳***을 포함해 총 18곳을 지정했다.

* 1차 문화도시('19년 12월) : 부천시, 서귀포시, 영도구(부산), 원주시, 천안시, 청주시, 포항시
** 2차 문화도시('21년 1월) : 강릉시, 김해시, 부평구(인천), 완주군, 춘천시
*** 3차 문화도시('21년 12월) : 공주시, 목포시, 밀양시, 수원시, 영등포구, 익산시

황희 장관은 "18개 문화도시 한 곳, 한 곳에서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,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. 문화도시는 지역주민이 직접 지역문제를 진단하고, 문화를 통해 지역주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, 현장의 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."라며, "앞으로도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모든 도시가 문화로 특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현장 의견을 새겨듣고, 꼼꼼하게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"라고 밝혔다.

※ 간담회 현장 사진 별도 배포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